

페미니즘과 몸으로 길 찾기

변신원

국문초록

페미니즘의 발전은 육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에 페미니스트들은 성차(gender)가 유발하는 각종 차별과 성폭력, 매매춘, 포르노, 성 상품화 등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성성을 규정해온 것은 바로 여성들의 몸의 특성, 혹은 여성의 몸과 관련된 역할들이고 이것이 여성에 억압적인 규범을 구성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폄하되어왔던 여성육체 및 남성과 다른 여성육체에서 파생되는 재생산, 여성성, 모성 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고려하기 시작했다.

몸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심은 문학 텍스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여성이 욕망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몸이 이제 타자 중심적인 '보살핌의 윤리'에 의해 세계의 중심이자 세계의 전부로 확장되는 경우이다.

작가들의 이러한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견고화는 여성의 육체를 상품화함으로써 미를 위한 무한 경쟁에 밀어 넣는다. 여성성의 특성으로 언급되는 허여성의 의미도 현실이라는 마법의 통로를 지나면 여성의 현 위치를 고착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다. 몸 담론은 새로운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전복의 지점이지만 스스로 왜곡될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만 한다.

1. 억압적 전통 속에서의 ‘몸’

배수아의 수필집 『내 안에 남자가 숨어있다』에는 달팽이 이야기가 나온다. 달팽이는 촉각으로 세상을 인지하기 때문에 먼 허공,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새, 겨울밤의 유성, 파도치는 검은 바다를 알 수 없을 것이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불행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읽어보면 개미들이 지구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파괴하는 거대한 무엇으로 인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된다. 개미들이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다섯 개의 거대한 기둥(즉, 손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을 사용한 것은 직어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생명체는 그들의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은유가 내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과 귀착점을 알지 못하고 우주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몸이 지닌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바 “내 몸은 나의 전부이며 그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영혼이란 몸의 어떤 면을 말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는 말은 인간의 존재 방식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몸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론적 관조주의에 저항하는 것이며, 살로서의 몸이 느끼는 실제이다.¹⁾ 몸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통제되어 왔지만 통제의 메커니즘을 읽기 시작하면 세계를 재해석, 재구축할 수 있다.²⁾ 몸은 니체의 망치가 되는 것이다.

몸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탯줄이며 다른 몸들, 정신들과 교류한다. 몸은

1) 정화열은 몸의 정치의 탈근대적 수렴을 현상학적 미학 혹은 신체해석학이라 부른다. 그에 의하며 첫째, 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육체와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미적인 것은 몸을 실제 수행하는 마당으로 간주하는 담론으로부터 탄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미적인 것은 또한 이론적 관조, 즉 테오리아의 독재에 저항하는 것이다. 셋째, 미적인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만끽>함으로써 통제와 지배를 전복하고 극복하는 일종의 성찰적 사유이다. 정화열, 『몸의 정치』(민음사, 1999), p.239

2) 위의 책, p.244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수단이며, 소통의 내용과 상관관계를 지닌다. 몸은 관념이 아니라 체험이며 스스로 행하는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몸은 몸이 지닌 자생적 에너지를 적절히 복원시킬 수만 있다면 기존의 제도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몸은 인간의 형이상학적 전통 속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외되어왔다. 근대교육제도이후 우리 사유체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서구 철학의 전통을 살펴보자. 스스로를 정신, 관념과 관련된 학문으로 정의했던 고대의 철학은 어떤가. 육체가 정신을 감금하고 있는 감옥이라고 보면서, 이성이 한 육체의 비이성적이고 생리적 욕구의 기능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본 플라톤의 예에서부터 몸 비하의 전통은 확연하다. 그는 현세를 부정하고 오로지 이데아만을 추구한다. 정신과 육체가 서로 다른 실체라는 이원론적 주장을 하면서 육체는 시계, 자동차, 배와 같은 기계나 도구일 뿐 의식이나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 데카르트 역시 그러한 전통을 이어 받고 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존재하는 무엇이었으며, 이성만이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육체 폄하 현상은 종교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사멸한 예수의 육체로부터 영혼이 부활했음을 믿었던 중세 기독교의 전통은 육체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금욕을 통해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의 육체관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 몸에 대한 이러한 폄하는 사회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유전학이나 육체, 개인 심리학적 요소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자연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것을,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이고 사회학적인 조건과 영향을 중시해온 전통은 자연히 개인성을 내포한 몸을 소홀히 여긴다.

오늘날 담론의 중심에 육체를 놓고 있는 페미니즘의 태도 역시 얼마 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것이었다. 초기 페미니즘을 형성해온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육체가 정신보다 열등하다는 학문의 지배적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인간을 **해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성의 강화나 자본의 재분배 같은 비육체적인 것에서의 변화를 꿈꿨던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이러한 육체 경시의 풍조는 점차 변화의 기류를 탄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유방식이 대두하면서 그 동안 주변에 머물러 있던 ‘주변적 요소들’이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육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떠오른 것이다. 과잉 억압된 육체, 관리되는 육체,³⁾ 소비되는 육체⁴⁾ 등 그들이 잃어 낸 몸의 현실은 복잡하고 문제적이다.

- 3) 예를 들어 푸코는 육체가 근대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서, 육체를 통해 어떻게 권력행사가 이루어지는가에 주목한다. 그는 19세기 의료, 사법체계의 변화 속에서 육체가 어떻게 권력행사의 지점이자 저항의 지점이 되었는지를 보여 주었고, 육체와 관련된 담화와 실천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적합한 주체를 어떻게 산출하며, 특정 권력과 능력을 가진 육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육체가 어떻게 다양한 개인으로 변화되는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김동중 외, 『섹슈얼리티로 이미지 읽기』 (인간사랑, 2001), pp.70~78. 이러한 해석은 전후의 소비자문화, 예술분야의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스트 운동 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몸 이해는 몸에 대한 과거의 생물학주의가 지니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육체를 더 이상 고정화되거나 수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는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다. 그는 몸이 사회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담론체계에 의해 적절히 관리되어 왔다고 본다.
- 4) 특히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몸에 관한 담론이 크게 부상하는 시기이다. 보드리야르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과정 속에서 육체와 성, 감성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나아가 소비문화의 발전은 이전까지 사회경제적 과정의 부속물이나 도구라는 종속적이고 부차적 차원에서 이해되었던 육체와 욕망을 담론의 중심에 놓게 했다. 그는 소비문화와 육체의 관계를 집요하게 탐구한다. 그리하여 현대의 소비문화가 과거에 영혼 구원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욕과 절제의 대상이었던 육체를 쾌락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변모시켰다고 보면서, 실제의 육체가 젊음, 건강, 좋은 컨디션, 아름다움 등의 이상적 이미지에 근접하면 할수록 그것의 교환가치는 더욱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원하기만 한다면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킬 수도 있게 된 현대의 소비문화는 이처럼 끝없는 쾌락의 환상을 생산한다. 그리하여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같은 각종의 육체산업은 절정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심지어 여성의 에로틱한 육체를 쾌락의 대중적 소비대상으로 확산시키면서 이것이 마치 육체의 해방이거나 한 듯 상황을 부추기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몸은 과거의 절제와 금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지만 단지 사물=기호로서 해방되었을 뿐이며 실체는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몸은 사유재산이나 자본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

몸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다양하게 전개되는 동안 현실을 살아야 하는 몸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어느 한 편에서 상품화되고 이미지화된 몸이 문제시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수동적으로 폄하되는 몸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페미니즘 이론의 분화와 발전은 육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에 페미니스트들은 성차(gender)가 유발하는 각종 차별과 성폭력, 매매춘, 포르노, 성 상품화 등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성성을 규정해온 것은 바로 여성들의 몸의 특성, 혹은 여성의 몸과 관련된 역할들이고 이것이 여성에 억압적인 규범을 구성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폄하되어왔던 여성육체 및 남성과 다른 여성육체에서 파생되는 재생산, 여성성, 모성 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몸에 대한 관심은 최근 포스트모더니즘과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젠더화된 육체에 관한 남근중심적, 이중적 문화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문화와 성문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냈는데, 이들의 문제제기는 단순히 육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분법적 사고와 본질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정신위주의 사상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복적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되는 기능적 교환가치가 되었는데, 에로티시즘 및 스포츠 그리고 건강상품들을 통해 욕망과 향유의 이념을 제멋대로 추상화하며 욕망으로서의 파괴적 본질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품화되고 물신화된 몸은 개인주의의 가치체계와 사회구조를 강화시키며, 인간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도구주의적 이데올로기와 향락주의, 쾌락주의를 낳고 있다.

2. 히스테리아(hysteria)로 규정되는 여성의 몸

몸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렇다면 왜 특히 여성의 몸인가.⁵⁾ 소병은 노자 『도덕경(道德經)』 제6장에 나온 ‘계곡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검은 암컷이라 한다. 검은 암컷의 문을 하늘과 땅의 뿌리라 한다. 이어지고 또 이어져 존재하니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노자가 말하는 ‘도’와 ‘암컷’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계곡의 신 : 검은 암컷’ 이야말로 도의 근원성, 영원성과 무한성을 증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 그리하여 소병은 다양한 논증을 통해 여성은 곧 ‘도’임을 증명해 보여준다. 즉, 노자는 여성성을 도의 원리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장사상이 우리의 사유체계에 무의식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예를 들어 음양사상, 모성을 대지에 비유하는 태도 등에서) 의식의 세계에 부상하고 있는 조선 후기 사회의 통치원리로 자리잡은 유교나 근대화이후 중심이념으로 부상한 서구 철학은 몸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데에 주력한다. 인간을 통치, 지배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몸을 관리·통제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특히 여성에게 중첩적으로 드러난다. 여성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후기 소수 귀족계층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귀족의 수를 한정

5) 몸은 사회의 다양한 통제와 이데올로기로 구성된 구조물이다. 일차적으로 몸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sex) 구분을 토대로 하지만 경험은 성별화된다. 예를 들어 남성에게는 성적인(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자유를 보장하고 여성에게는 순결할 것을 강요하며 성적 욕망과 표현을 제한하는 등 성별에 따라 다른 성(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구분이 정해진다. 또한 같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성적 억압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젠더(gender)화된 성이다.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며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섹슈얼리티(sexuality)에 초점을 맞춘다면 매춘, 순결 이데올로기, 다이어트, 낙태 등과 같은 각종의 다양한 여성문제를 해석해 낼 수 있다. 섹슈얼리티는 페미니즘의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가 된다.

6) 소병, 노승현 역, 『노자와 성』(문학동네, 2000), p.7.

해야만 했을 때 여성에게 특히 정절의 윤리를 강조한 현실과 같은 것 말이다. 남성들의 축첩은 여전히 허용되었지만 서자에겐 호부호형이 허락되지 않았고 여성의 투기는 근원적으로 불허되었던 사실은 사회의 모순을 여성에게 떠맡긴 전형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여성의 정절, 현숙함은 목숨 혹은 그녀의 인격이었고, **강간당한 여성에게는 은장도를 내린다.** 이런 부당한 명령이 오히려 가문의 명예를 위한 행위로 칭송된다.

몸이 중심에서 배제되어 왔다면, 여성 또한 중심에서 배제되어 왔다. 역사 속의 여성은 생식을 위한 존재, 남성들의 성적 노리개이거나 가사 일을 위한 노동력 이외에 다른 존재인 적이 없었다. 여성은 즉 몸이거나 몸의 기능에 의해 설명된다.⁷⁾ 상층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내혼을 읽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글을 쓴다는 것은 일절 금지되어 세초의 풍습이 있던 조선조의 여성에게 삶이란 사유도 자취도 없이 지워지는 방식에 불과하였다.⁸⁾ 그녀들의 타자화된 삶은 사상과 생활 패턴이 급격히 서구화되고 개인의식, 자유 연애 사상이 싹튼 근대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녀들의 삶은 그녀들이 몸으로서의 존재이기에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몸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이중의 소외를 겪는다.**⁹⁾ 자유연애의 가치를 내걸었던 최초의 여성작가 3인이 세인의 비웃음 속에 일생을 마감하게 된 현실은 '몸'으로써의 여성이 진정으로 '몸'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사회에서 가하는 처벌이 어떤 것인지

7)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태도는 매우 오랜 연원이 있는 것으로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연을 처녀에 비유하면서 자궁 안의 쓸모 있는 것들을 캐내기 위해 과학이라는 연장을 깊숙이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다. 이로써 여성과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 여기게 된 데에는 근대 과학 혁명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나희덕, 「생태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창작과 비평』(창작과비평사, 2000, 겨울), p.57.

8) 신분이 높을수록 가문 혼이 철저히 지켜지던 조선시대의 여성은 다산과 다남의 관상 13구라는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 눈매가 길고 눈 끝이 젓지 말아야 하며/눈썹이 길고 이마가 오뎅해야 한다... 등으로 시작해서 ...배꼽이 깊고 배가 두툼해야 하며/엉덩이가 편편하고 배가 커야한다고 끝나는 13행의 기준은 생남의 수단으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말해 준다.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가람기획, 1998) 참조.

알게 한다. 결국 여성은 수동화되고 타자화된 몸의 존재이고 그 몸으로써 삶을 접한다. 그것은 자기 욕망으로부터의 거세로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궁이다. 푸코는 19세기 권력에 의한 성의 과학화를 통해 얻어진 특성의 하나로 여성의 육체를 온통 성적으로 가득 채워진 몸, 즉 히스테리로 본 것을 든다. ‘히스테리’란 원래 ‘자궁’ (hysteria)을 의미하는 희랍어에 기원을 가진다. 이러한 푸코의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은 자궁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 순결하거나 부정한 여인을 나누는 기준은 자궁이 결정한다. 그리고 여성은 사회의 모순을 자궁으로 받아낸다.

「빈처」의 예를 들어보자. 은희경의 「빈처」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그것이 지니는 불모의 황폐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와 직장인이다. 그러나 그들 부부가 사소하게 상처받음으로써 서서히 무기력해지는 일상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교묘하게 교착되어 있는 현실의 한 지점이다. 남편은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 속에서 휘청거리고, 아내는 그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타자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사랑해서 결혼하였지만 서로 전혀 소통하지 못한다. 남편과 대화하려는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는 번번이 좌절된다. 이러한 좌절에 상심하는 아내가 남편에게는 단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남편에게

9) 여성이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동화를 예를 들어보면, 「인어공주」나 「백조왕자」는 여성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대 혹은 목소리를 잃어야 한다.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서는 왕자의 첫 키스를 받기 위해 수년 동안을 잠들어 있어야만 한다. 우리 나라의 설화나 고소설에는 보다 극단적인 양상으로 인신공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나온다. 사람을 잡아먹는 커다란 지네에게 재물로 바쳐진 착한 처녀의 이야기나(「두껍아 두껍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전」 등은 섹슈얼리티의 소외를 넘어서 여성을 사회의 희생양으로까지 대상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춘향전」 역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극단의 상황을 제시한다. 근대문학 속에서 「무정」의 영채는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자결하려 들고 「감자」의 복녀, 「소나기」의 아내는 빈곤 때문에 매춘의 길에 들어선다.

아내는 타자이며 단지 ‘몸’ 이기 때문이다.

「빈처」의 이야기에는 여성의 몸이 왜곡되는 현실, 욕망의 거세에 대한 탐색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쉬운 여자인가.

새벽에 파고드는 그이를 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면서 사는 게 다 안스럽기만 하였다. 아침에 그이는 다정하다. 일찍 들어올게. 하더니 정말로 일찍 들어왔다. 나는 그만 감격해서, 저는 당신이 얼마든지 주무르고 어를 수 있는 여자예요, 하듯이 다소곳해져 갖고 그이를 맞았다. 그런데 그이는 다시 나간다. 나는 왜 이렇게 쉬운 여자인가. 그이에게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가.

-은희경, 「빈처」 중에서

남편과의 성적 관계에 환멸을 느끼는 장면이다. 「빈처」의 그녀는 한 아이를 잉태, 분만한 평범한 자궁의 소유자이다. 그녀의 몸은 외세에 의해 수탈당하고, 빈궁 때문에 매매품으로 전락해 버린 몸과 비교해보면 행복한 몸임에 틀림없다. 「황구의 비명」에 나오는 양공주의 몸이나, 배 위로 사단 병력이 지나간 「삼포 가는 길」의 백화, 사랑에 배반당하고 불임이 된 「별들의 고향」의 경아의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닌 모순과 부조리를 받아냈던 불행한 자궁을 지닌 몸들이다. 이 여성들은 각각 제국주의, 군부정치, 자본주의의 모순을 안고 있다. 집문서를 찾기 위해 건축업자를 찾아가는 난장이의 딸 영희, 남편의 외도로 고독해 하는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주인공, 불임으로 버림받는 차현숙의 「나비의 꿈」에 등장하는 아내의 몸, 등등 우리 삶의 무수한 텍스트 속에서 그들의 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거기에 비한다면 그녀의 히스테리아는 안정적인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환멸만을 느낀다. 게다가 거짓 연애의 상상을 해야할 만큼 정신적으로 공허하다. 그녀는 히스테릭한 것일까?

프로이트는 이를 여성 히스테리의 경미한 증상으로 이해할지 몰라도, 소

설에서 그것은 남편이 그녀를 ‘머리가 빈’, ‘자궁’으로서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 “그녀가 언제부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걸까. 좀 뜻밖이었다”고. 남편은 아내의 일기를 훑쳐보며 아내의 감춰진 욕구를 알게 되지만 그녀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편에게 아내는 자궁이며 하나의 노동력일 뿐, 이성과 감정을 겸비한 동등한 인격체로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즉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상상의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그녀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을 버린다. 이러한 상상 연애의 모습은 은희경의 「빈처」 전후로 양산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일탈하는 여성들의 행적과 동일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 여성 작가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랑 찾기 여행은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금기되었던 성적 욕망을 자각함으로써 타자화된 몸(혹은 자아)으로부터 스스로 주체가 되고 비로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바타이유는 「금기와 위반의 성」에서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인간이 존재에 대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던 바 이 때 텍스트는 더 이상 타자화된 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그 동안 이성(남성들의 권력)에 의해 억압되었던 무의식의 욕망(성욕, 프로이트의 리비도, 근대의 남성성에 대립하는 여성성, 라캉의 상상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됨으로써 타자화된 몸을 자기 것으로 되찾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성들은 자궁에 의해 그 존재 양태가 결정되지만, 자궁은 비이성적인 것, 철저히 남성의 몸에 종속된 것이다. 그녀의 몸은 곧 그녀를 타자화하는 출발점이다. 이상으로 사회적 문맥 속에서의 여성의 소외는 양파와 같은 무수한 겹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다시 타자화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온몸으로 저항해 나아가는 저항의 출발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이제 이성적 사유/관념이 중심이 되고 감각적 체험/실체가 부정되는 전통적인 이분법의 위

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몸은 스스로 욕망의 주체가 됨으로써 기존의 제도나 권위가 지닌 모순의 양상을 밝히는 전복의 지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3. 몸 - 모색과 긴장의 출발점

우리 문학계에 몸에 대한 담론이 생산되면서 텍스트에서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 예술 텍스트 속에서 구현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관점 역시 다양화된다. 편자 또한 대단히 크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고수하며, 다른 한 편에서는 구속되었던 여성 육체의 해방을 외치고 또한 어떤 텍스트는 여성성의 구현이 구원이며 대안이라는 여성주의적 이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순결과 우아를 추구하는 전통적 여성 육체 이미지의 반복적 생산은 일반적 텍스트 속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두 가지 대표적인 입장을 살펴보자. 우선 몸이 여성욕망을 발견하는 근원적 기지가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신현림의 분방함을 보기로 하겠다.

같이 살 놈 아니면 연애는 소모전이라고 남자는 유곽에 가서 몸이라도 풀 수 있지 우리는 그림자처럼 달라붙는 정욕을 터트릴 방법이 없지 이를 악물고 참아야하는 피로감이나 음악을 그물침대로 삼고 누워 젖 가슴이나 쓸어 내리는 설움이나 과식이나 수다로 풀며...

-신현림, 「너희는 시발을 아느냐」 중에서

금기시 되었거나 비유를 통해 겨우 그 흔적을 드러낼 정도였던 여성의 성적 욕망이 신현림의 시에서는 원색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과감함과 도전적 태도가 곧바로 시적 성취도일 수는 없지만 수동화되고 타자화된 여성의

성정체성에 해방감을 주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여성들이 욕망의 주체이며 그녀들의 몸에 주어진 은밀한 열락을 즐기고 싶어함을 그녀의 시는 소리 높여 주장한다. 이러한 방식, 즉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성적 욕망의 주체로'라는 문제의식은 몸의 통제를 통해 관리되었던 여성의 현실에 대한 전복적 힘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성의 육체는 더 이상 가부장제 사회의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해로 인하여 몸에서 출발하는 여성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되어왔던 그녀들, 스스로는 텅 빈 그릇이며 단지 욕망의 대상으로써만 자신의 입지점을 세울 수 있었던 그녀들이 스스로 욕망의 주체임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 삶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의 다른 토대가 전혀 성숙되지 않은 채,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 여성주체성의 대안인 것으로 확대되거나 오히려 여성의 성적 도구화와 가부장 사회와의 타협만을 조장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권명아는 은희경, 전경린, 이경자 등의 소설에 대하여 이들의 소설이 보여주는 '불륜의 플롯'이 마치 "가족해체나 여성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소설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가족을 하나의 추문점으로 치부하는...개인의 정체성을 협소한 의미의 가족관계(남편과의 불화, 시대와의 갈등)로 환원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가족문제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한다.¹⁰⁾ 옳은 지적이다. 독자들이 여성작가의 글에 더 이상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소재의 반복에서부터 비롯된 현실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논의를 여기서 멈추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왜 이러한 소재가 1910년대 신여성 작가들이 근대 작가로 입성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반복되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반복성에 내포된 여성작가들의 내적 욕망이란 무엇일까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작가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

10) 권명아,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책세상, 2000) 참조.

론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불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녀들의 현실적 상황, 내적 필연성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사 영역의 확실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사적 영역의 전문가 역할을 맞게 된 여성에게 사랑-낭만적 사랑이란 무엇보다도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일부일처제라는 제도에 의존적인 사랑이란 그리 지속적인 것도 바람직한 것도 될 수 없는 까닭에 여성의 방향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해석이 불륜소설의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소설을 비판하게 될 경우 이는 반페미니스트적 평자들에게 ‘페미니즘문학은 불륜문학’이라는 부정적인 전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좀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탐색을 하는 입장을 살펴보자. 이리가레이는 여성이 단지 자궁에 의해 성적 쾌락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며 다양성과 유동성, 접촉을 통해 성적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라 했거니와 이러한 몸의 특성이 그녀들의 섬세함, 부드럽고 풍부하며 다양한 여성의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¹¹⁾ 즉, 여성은 시각적으로 대상을 객관화, 감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촉각으로 느끼고 촉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샤위를 한 다음 세면대 앞에 한참 동안 서서 거울 속의 내 알몸을 본다. 거울에 바짝 붙어 서 있으려니 젖꼭지가 세면대에 닿는다. 차갑고 단단한 도자기에 닿는 젖꼭지의 감촉이 싫지 않다. 이런 섬세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여자된 즐거움인 듯도 하다.

-은희경, 「빈처」 중에서

11) 팸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 p.218.

역시 「빈처」에서 발취한 위의 예문은 그녀만이 느끼는 육체의 열락의 순간을 나타내며, 그것은 남성과는 관계없는 원초적인 쾌락, 촉각의 즐거움이 된다. 역시 이리가레이는 촉각의 인식은 돌보아 주는 행위이며 대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고 이야기한다.¹²⁾ 스스로 열락하는 여성의 육체는 참여와 '허여(gift and gift)'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이 은유는 여성성의 특성을 구원의 힘, 혹은 우주의 원리로까지 확장한다. 「빈처」의 경우 이는 주인공이 풍을 받아들이는 행위와 상동적이다. 김혜순이 우리의 설화 '바리데기 공주'를 차용한 예를 보자.

…그러나 바리데기에게 부과된 노동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주라'이다. "물 삼 년 길어주고" "나무 삼 년 해주고" "불 삼 년 때주고" "일곱 아들 상전 받아주고" "물 구경 꽃구경하고"이다. 이렇게 허여를 통해서 얻게 된 바리데기의 능력은 금기의 설화 속에 들어 있는 선녀의 옷처럼 벗고 입는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몸 자체에서 나오는 사랑의 능력이다.

12) 이리가레이는 스스로를 애무할 수 없고, 반드시 타자를 필요로 하는 '촉감의 아포리아'에 관해 말한다. 피부를 통하지 않은 접촉이란 없다. 피부는 인간적 접촉에 있어서 감각의 첨병이다. 피부 — 특히 피부색 — 은 사회적으로 새겨진 기록이며, 접촉이란 실제로 '피부간의 거래'이다. 「차이를 생각한다(Thinking the Difference)」에서 이리가레이는 남성적 정체성을 취한다는 것은 "남자의 피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왜 스스로에게 간지럼을 먹일 수 없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미묘한 문제이고, 사회적 접촉의 장으로서의 피부의 형태학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어찌서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 없는가에 대한 대답은 간지럼 먹이기가 일종의 교섭놀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간지럼 먹이기에 "타자의 인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타자의 부재 속에서 간지럼을 타는 "육체적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타자와의 접촉 속에서만 가능하다. 접촉은 독특한 여성적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살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친밀함으로 이루어진 밀교적 순간이다. 접촉은 교섭을 낳으며, 교섭이란 상호적인 것이고 살로서의 몸의 '동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간적 연속성과 체험된 시간의 '지속'을 같이 나눈다(나는 의미를 듣는다)가 된다. 정화열, 「생태철학과 보살핌의 윤리」, 『녹색평론』7, 8월호, (녹색평론사, 1996).

- 김혜순, 「연인, 환자, 시인, 그리고 너」 중에서

여성의 몸은 이제 타자 중심적인 ‘보살핌의 윤리’에 의해 세계의 중심이며 세계의 전부로 확장된다. 김혜순은 그녀의 놀라운 직관에 의해 불결하며 침묵되어야 했고 약탈, 혹은 유희의 대상이었던 여성의 몸을 생성의 몸이며 위대한 창조력의 원천으로 재탄생시킨다. 그러나 바리데기의 행위와 유비적으로 비슷한 모성의 행위를 보자.

아들녀석이 칭얼거린다. 아까 5분 넘게 벨을 눌러도 끄덕 않던 그녀의 잠은 아이의 뒤척이는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난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더니 이마 위의 물수건을 내려놓고 아이를 품에 끌어안는다. 그리고는 졸린 눈을 감은 채 아이의 뺨에 자기의 뺨을 대고 앞뒤로 몸을 흔들며 등을 토닥거린다. 그러나 잠을 덜 깬 탓에 등을 토닥이다가 뒤통수를 토닥이다가, 손놀림이 일정하지 않다.

-은희경의 「빈처」 중에서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 밤 열 시까지’ 근무하는 그녀는 모든 가사 일을 혼자 도맡아 한다. 그녀는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에 데이거나 허리가 삐끗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그녀의 주방일은 오로지 남편과 아이의 미각을 위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녀는 자신의 입을 위해서는 요리하지 않는다. 그녀의 육체는 오로지 남을 돌보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녀는 바리데기처럼 자신이 ‘소비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허여성(gift and gift)의 경지를 보여주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지도 스스로가 공주로 격상되지도 못한다. 바리데기의 “해주라”는 그녀의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행위와 유비적으로 비슷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비일관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무보수의 노동일 뿐이다. 그녀들이 보여주는 허여성 태도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전복적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무화시키고도 남을 강력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견고함으로 침식되어 버

림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역사 속의 그녀의 노동을 ‘허여’의 노동으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것은 그녀들이 몸으로 행한 노동이 그 자체로 의미화된 ‘이후’ 재구성되어야 할, 권력을 전복하는 힘이며 구원의 에너지이다. “...노려보고 있었던 거라. 증조할머니 비탈 밭에서 호랑이를 만나, 결국 집안을 일으킨 건 여자들인 거라. 머리가 지글거리고 돌밭이 지글거리고, 호랑이 눈깔 티들어가다 못해 슬땀 뒤돌아 가버렸던 거라. 그래 전 재산이었던 엇송아지를 지켰고, 할머니 눈물 논밭에 굴러 싹이 나고 잎이 나고(죄정례, 「햇빛 속에 호랑이」 중에서) “와 같은 시의 역동성이 값지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여성의 생산력과 노동은 작게는 가정을, 크게는 인간을 일구어내는 힘이었음을 우렁우렁하게 주장하는 것, 그리하여 여성의 몸에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텍스트의 힘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노혜경의 시 「여기, 문 하나가…」에서 표현된 자궁, “들어올수록 넓어지는 방 넓어지는 문/문들은 넘쳐 나와 모든 것에 있습니다/나는 가장 넓고 가장 둥근 곳에 있습니다”의 그것이, 그 옹호한, 우주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맥락을 지나치게 생략한 채 이루어진 초월 혹은 비약이라는 생각을 품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에서 형상화된 자궁은 한없이 확장되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우주이다. 여성의 자궁이 지닌 생산력은 우주를 생성하는 원리가 반복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자궁이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무화되어왔던 여성의 역동적 힘이 끝없이 재해석되고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전에 없이 몸이 사유의 대상이 된 오늘, 여성의 몸에 대한 담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 가운데 제기되는 페미니즘의 지향과 모색은 다양하다. 그러나 성욕 혹은 성적 정체성이 여성의 정체성과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며, 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의 몸을 초월과 구원의 구현체로만 격상시킬 수도 없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똥을 친근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 모욕에 가득한 현실을 다정하게 껴안는 것이 더 리얼리티가 있는 게 현실이다.

여성의 몸을 이야기하는 다양성은 페미니즘의 전략상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 다양한 미로의 가능성 중에서 먼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의미를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이제 가부장적 타자화된 시선을 벗어나고자 힘겨운 몸짓을 하는 여성의 몸은, 그 몸이 당면한 보다 복잡한 가부장제의 보이지 않는 “조정”을 피해 나갈 새로운 눈을 떠야만 한다.

최근 페미니즘의 담론이 왕성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된 여성 지위에 대한 무수한 담론들은 담론의 양이 증가한 만큼의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의 견고화는 여성의 육체를 상품화함으로써 미를 위한 무한 경쟁에 밀어 넣는다. 여성성의 특성으로 언급되는 허여성의 옹호한 의미도 현실이라는 마법의 통로를 지나면 여성의 현재 위치를 고착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 자신의 앞에 놓인 미로들을 선택하며 의미의 실을 짚는 과정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미로는 더 이상 길이 아닌 것이다.

■ 필자 : 덕성여대 강사

Abstract**Feminism and Making an expedition with the body**

Byun Shin-Won

The development of feminism accompanied the interest in the body. Feminists in 1960's began to notice the problems of kinds of discrimination, sexual violence, buying and selling sex, pornography, sex-commodities, etc. derived from gender. They argued what determines femininity is just the characteristic of female body or the role associated with the body and that this have constituted the ruling system oppressive to women. Then they started to rethink the question of reproduction, femininity, and maternity etc. oriented from female body which has been depreciated and different from male's.

The attention to the body in literary texts diverges into two directions. One is the case of woman's declaration that she is the subject of desire, and the other case, female body's expansion to the center or entity of the world through other-centered 'morality of caring'.

In spite of such an optimism of writers, the solidification of this capitalist society cause women to compete for beauty continually. 'Economy of gift', characteristic of femininity can also become an ideology to concrete women's present place if it pass through the labyrinth of real world. We are to be alerted where 'body' discourses can be distorted themselves, although they can create the points of revolution to produce new meanings.